

교육계 개혁·변화 새 바람 무리한 정책...갈등 양상도

회고 2010

3 진보교육감 체제

2010년 광주·전남 교육계는 '지각변동'이 일어난 해로 기록됐다. 지난 1989년 전교조 창립 이래 처음으로 6·2 지방선거를 거쳐 전교조 출신 장휘국, 전교조 성향인 장만재 교육감이 각각 광주·전남 교육수장에 오른 것이다.

이같은 대변동의 원동력은 그동안 교육계에 깊숙하게 뿌리 박힌 보수적 시각과 기득권에 대한 혁신을 요구하는 '민심'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추진한 교육정책과 제도개선 작업 초기부터 일부 시책에 차질을 빚고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이는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계 변화 바람=장휘국 광주주시 교육감과 장만재 전남도 교육감이 공동으로 내세운 개혁 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위)과 장만재 전남도교육감이 각각 지난 11월, 7월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비리직원 영구 퇴출·혁신학교 운영

외고 지정 철회·편법 인사 잡음도

제는 고질적인 교육비리 근절, 교육복지 실현, 교육양극화 해소다. 장 휘국시 교육감은 단 한 번이라도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윈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도입을 선언했다.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과감하게 외부인사의 참여를 키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만재 전남도 교육감은 내부 직원이 맡아오던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해 검사 출신인 김승태(38) 변호사를 선임했다.

내년부터는 교단에 새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24개 혁신학교(전남은 무지개 학교)가 지정돼 본격 운영된다.

혁신학교는 광주·전남, 서울, 강원, 전북 등 진보 교육감이 추진하

고 있는 새 학교 운동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하되, 토론·현장학습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학생·교사가 행복한 학교'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책 추진과정 잡음도= 시도 교육감이 각각 지난 11월8일, 7월1일 취임해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르지만, '조급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교육의 안정성을 떨어뜨렸다' 지적도 많다. 양 시도 교육감이 인사·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장휘국 시 교육감은 취임 후 불과 5일만에 전임 교육감이 현안으로 추진한 외고지정 문제를 직권 철회 조치로 백지화 했다.

이는 선출직 교육감들의 교육철학이 상반돼 행정이 뒤바뀌는 것

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러오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는 취임식 날 일부 전문직(과장)을 직무대리 형식을 빌려 편법 좌천 인사를 단행하는가 하면 장학사 공개전형 기준을 갑작스럽게 변경,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장만재 전남도 교육감은 일선 학교 교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評定)을 후배 교사들이 하도록 인사 내부 규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는 중간 관리자인 교감에 대한 평가를 후배가 하는 것으로 교육계에 예전 선례가 없는 것이어서 교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또 산하 22개 지역 교육장과 4개 직속 기관장에게 무리하게 일괄 보직사퇴서를 요구, 교육 관료들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밖에 목포 교육장 공모에서 심사위원 신원 사전 유출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교육장 후보를 추천한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영양기자 penfoot@kwangju.co.kr

2011년 경제정책 방향 ▶분야별 계획 5면

성장률 5%...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

재정투입 일자리 55만5000개 창출·서비스 요금 안정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5% 내외로 유지했지만 여건이 악화되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을 통해 55만 5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증가속도를 넘어지지 않도록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강화하고,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구조 개선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자본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고자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조정하고 은행세를 '가시건전성 부담금'의 형태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14일 '다함께 잘사는 선진국 경제회복세의 둔화 가능성, 유럽 재정위기 우려, 물가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북한의 국지도발이나 지도체제 변화 가능성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다.

이에 따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위험이 있지만 내년 한국경제는 5% 안팎의 성장이 가능하며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5.8%)보다 높은 6.1%가 될 것으로 봤다.

내년 소비는 4% 초중반대, 취업자 증가폭은 28만명 안팎, 경상수지 흑자는 새로운 기준으로 160억달러(옛 기준으로는 180억달러)가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3%가량 오를 것으로, 수출은 10%, 수입은 15%가량 늘면서 교역 1조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물가안정 속에 경기회복 흐름이 공고화되도록 나가되 대외 충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대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재정 2조5000억원을 투입해 22개부처에서 153개 사업에 걸쳐 55만5천명(연간 환산 39만6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가계부채와 관련, 금리 상승 시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의 이자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해 금리 변동폭을 제한하는 '금리 캡(Cap)'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를 0.40%로 올리고 예보 공동계정 설치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지방세 감면총량제도 도입한다. 지자체별로 감면총량을 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5% 내에서 제한하되, 총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배 만큼을 다음해 총량에서 삭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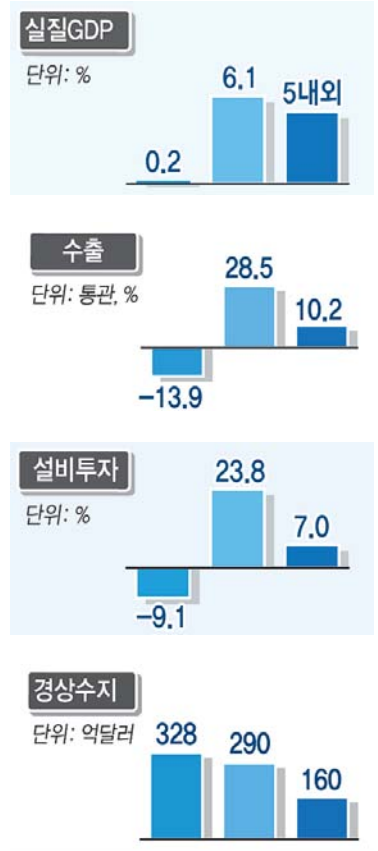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거래방식을 경매 중심에서 정가매매, 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한다. 현행 80개인 생활필수품 가격공개 대상에 이마트와 자판점 등 10개 서비스료 등 수익자 부담 경비에 대한 기준도 만든다.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67개로 늘린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고용시장과 관련,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자영업 창업과 업종전환을 막는 진입장벽도 개선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세제 지원요건을 개선하고, 고령자와 장애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배 만큼을 다음해 총량에서 삭감하는 방식이



물을 연장한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실추성 제고방안도 검토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선도 전문대 육성 등 전문대학 발전방안이 상반기에 마련된다. 6곳에 산업단지 캠퍼스를 조성하고 기술인재의 조기취업을 위해 현행 5년제(전문계고3년+전문대2년) 과정을 4년 안팎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전문계고 졸업생의 채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12년까지 年근로시간 2천시간 이내로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노동부 내년 업무 보고

2012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950시간 정도로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이 축소된다. 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업종에 택배·커리어서비스가 추가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내년 업무보고'를 하고, 이를 통해 함께 잘사는 공정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고용부는 201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긴 우리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1950시간대로 줄이고자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0년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연간 2천255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1766시간)보다 31.7%나 길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실태조사와 노

사정위원회 논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2012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법정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으로는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촬영업, 통신업, 교육연연업, 광고업, 의료위생업, 점영업, 청소업, 이음업, 사회복지사업 등 12개 업종이 지정돼 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미스트

럭운전자 등 4대 직종에만 한정된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택배와 커리어서비스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거래, 정부 포상 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임금을 체납한 건설업체는 최장 2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공공공사 입찰자의 하도급업체가 임금을 체불한 때는 입찰자에 감점을 주기로 했다. 월 1회 이상 임금 정지지불 원칙을 어겨도 제재한다.

/연합뉴스

본교캠퍼스 전경

마지막 시대! 마지막 부르심!

이환수 이사장

광주바이블칼리지 신(편)입생 추가 모집

GWANGJU BIBL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Th.M.(신학석사)과정 개설

1년에 최단기 학위과정 완성 3개월 단위 한 학기에 8학점(전공필수 4학점, 전공선택 4학점) 이수하면 3학기에 졸업이수학점을 마치고 3개월간 논문작성해서 12개월에 학위 완성함.

최고의 교수진 선교, 치유상담, 구약, 고대근동어 분야에서는 한국최고의 교수진.

학비 저렴 타 대학 학비의 1/2 내지 1/3

진로 보장 ① 이 과정에 입학자는 100% T/A(교육조교) 자격증을 수여하고 최대 6회까지 지도교수의 전공강의 1/2를 현장강의 함.

② 우수졸업생 해외 Ph.D. 과정 유학을 보장하고 졸업생 전원 학부강의를 맡을 수 있는 기회부여.

③ 타 대학 출강 적극 추천

④ 수업시간 2주1회(학생편에서 시간이 있을 때 수업시간 자유)

모집 안내 10명까지 인원 제한. 지원 분야(선교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역사신학)

입학 문의 학장 직접상담 ☎ 010-7413-1215, 061) 381-0000, 1365

학부 및 신대원(M.Div)과정

1. 국내신학교 중 최고의 시설, 최최의 교육환경
2. 300명 수용 생활관, 체육관, 체플(예배당), 식당, 도서관, 교수연구실, 개인지도실 각종 연구소, 수영장, 산책로
3. 호남 최고 수준의 교수진 - 선교, 치유, 상담, 구약, 고대근동어 분야에서는 한국최고의 교수진
4. 최 단기 학위과정 완성 - 대학 학부는 2년 대학원은 1년에 졸업
5. 대 교단 총회인신학교 - 졸업생 전원 100% 목사인수, 선교사파출(책임진로지도)
6. Venture Spirit
7. 전선성과 은사 그리고 Venture Spirit 를 가진 전문(교수, 목사, 선교사)로 하여금 국내 또는 해외 선교지역에 교회를 개척케 한 후 그곳에 GBC졸업생들을 심어준다.
8. 특수지역, 특수교회를 위한 맞춤형 신학교육
9. 국내 도시 목회, 성목회, 산골목회, 농어촌목회, 해외 선교별 중공신교, 몽골신교, 중앙아시아 선교, 일본신교, 베트남신교, 캄보디아신교, 태국신교, 인도신교, 파키스탄신교, 중동신교, 등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지역 복음 사역자들을 위한 맞춤형 특수교육과 훈련실시.
10. 복수 학위제 실시

- 모든 학위 과정의 절반은 국내 GBC에서, 나머지 절반은 해외 자매 학교에서 이수하고 학위는 양국에서 각각 준다. (한 과정 두개의 학위)

세린사회교육원

- 대체 의학 (월 5만원)
- 영어 특강 (월 10만원)
- 텀스 영어(월 10만원)
- 워십 찬양리더자 교육(월 7만원)

드거른 영성과 날카로운 지성의 조화

광주바이블칼리지

Gwangju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평생교육의 1번지

세린사회교육원

후 원 : Chemolee Lab, Corp.(U.S.A)

http://www.gjbc.kr

전남 담양군 무정면 성도리 산 72번지

TEL, 061) 381-1365/0000

FAX, 061) 381-1367